

KISA

혁신  
시리즈

## 조직문화 개선 위한 전직원 회의

신대규 | 혁신기획팀 팀장 tkshin@kisa.or.kr

전직원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개선회의가 지난 8월 28일 18층 KISA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를 정리하고,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기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헌장 선포식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는 부서별로 주제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2개 부서)', 'CEO 레터에 대한 답장 및 바라는 점(2개 부서)', '사회공헌 캠페인 방안(1개 부서)'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함께 경영혁신단이 올해 개선된 행정 서비스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첫번째 주제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맡은 두 개 부서는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는데, 먼저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KISA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향상'이라는 개선 주제를 도출했다. 이와 더불어 조직문화 비전으로 'Open KISA, Do it KISA!'를 제시했고, 'OkiDoki'라는 참신한 구호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 세부 추진방안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Open Kisarang'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보안성평가단은 조직문화 관련 활동들을 분석해 KISA의 조직문화를 '사람중심 문화'로 규정하고, 개선방안으로 홈커밍데이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 'CEO 레터에 대한 답장 및 바라는 점'에서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CEO 취임 이후 개선된 점, 개선할 점,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항 등을 선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개선된 점으로 직원들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39%)했고, 개선할 점으로는 급여수준(55%)과 인사제도(25%)를 꼽았다. 한편, IT기반보호단에서는 CEO 레터에 대한 답장으로 황중연 원장을 사모하는 한 직원의 마음을 코믹하게 전달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볍게 이끌었다.

정책개발단이 발표한 마지막 주제 '사회봉사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사회봉사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3대 키워드로 Life, Green, Fun을 도출하고, Catch Phrase로 'I-RUN'을 제시했다. I-RUN은 생활의 전반에 걸쳐(Ife), 친환경적이고(gReen), 재미있는(fUN) 정보보호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해(I) 달린다(RUN)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영혁신단에서는 상반기 주요 경영환경 및 서비스 개선 사례로 교육체계 개선, 복지카드 개선, 조직문화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관련 실적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신감과 밝아진 조직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이번 전직원 회의는 사회봉사활동, 조직문화 개선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GWP(Great Work Place)를 위한 경영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게 해 준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S**